

한전, 우수 협력사 지원 확대...2.5% 저금리 융자

KTP인증·기자재 공급유자격 등록 기업 대상

산업재해 예방 투자 우대...취급 은행도 늘려

한국전력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력 분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9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융자금리 인하와 산업재해 예방 투자 우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제4차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경영자금 융자금리를 시중금리(평균 3.61~5.07%)보다 낮은 연 2.5%(기존 3.0%)로 인하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원 대상은 한전의

KTP(KEPCO Trusted Partner) 인증 기업과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 기업으로,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융자 항목에 '산업재해 예방 투자' 부분을 새로 신설해, 평가 시 해당 항목을 우대하도록 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산업계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융자 취급은행을 기존 기업

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타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신청·처리·수령 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한전은 지난 1995년부터 전력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전기 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위탁해 융자사업을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총 181개 기업에 약 1699억원을 지원하며 전력 기자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기술개발 지원을

넘어 경영자금, 해외판로개척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기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정부의 '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세계 "리닝족 잡아라" 12일까지 러너스 워크 기획전

(주)광주신세계가 가을을 맞아 러닝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러너스 워크'를 연다.

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스포츠 브랜드 매출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0% 넘게 신장했다.

특히 러닝용품으로 인기가 높은 '뉴발란스'의 경우 1년 전 대비 100%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했고, '아디다스'는 40% 넘게 매출상승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광주신세계 플래이스팟 뉴발란스는 호남 최대 규모 매장으로 일반 매장에서 보기 힘든 SC 엘리트 V, SC 페이스 V2 모델들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러닝 용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프로모션을 펼친다. '나이키'에서는 러닝 의류를 20% 할인한다. '리복'에서는 15만원 이상 구매시 10%, 30만원 이상 구매시 20% 할인을 제공한다. '엄브로'와 '월라'는 러닝화 구매시 각각 신발주머니, 양말을 증정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민생쿠폰 사라지니 소매유통업 '찬바람'

광주상의 4분기 RBSI 102→92...70% '쿠폰 다소 긍정적'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10곳 중 7곳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92'를 기록하며 전분기(102) 대비 하락했다.

이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치로,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민생소비쿠폰 사용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비 흐름이 둔화되면서 업계의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매출전망지수(102→84)와

수익전망지수(87→80)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하며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75→50), 편의점(106→94)이 모두 '악화'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업체의 70.2%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소비쿠폰을 경기 침체 속에 소비 진작의 긍정적 수단으로 분석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신세계 "시큐리티센터 광주로" (주)광주신세계가 광주시의 시큐리티센터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본관 1층 광장에서 시큐리티센터 유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신세계 광장에서 진행 중인 시큐리티센터 유치 서명 활동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광양 기업경기 악화...목표실적 달성 32%

4분기 전망지수 '72.7' 전분기보다 9.8p 하락

광양지역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9일 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관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 82.5에 비해 9.8p 하락한 72.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73.9)을 밑도는 수준이며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16분기 동안 기준치인 100 이하를 기록한 것이다. 전분기 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9.1%인데 반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36.4%에 달했으며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54.5%였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또 연간 영업이익의 목표 대비 실적을 전망하는 질문에서 목표달성 예상기업은 31.8%였으나 소폭(10%) 미달은 40.9%, 크게 미달은 27.3%에 달해 영업이익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 45.5%, 원자재 상승 31.8%, 관세증가 4.6%, 에너지비용 증가 4.5%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부담 입법분야 질문에서는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 38.6%, 노사관계 부담 증대 29.5%,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강화 15.9%, 입지환경 등 규제 강화 11.4%,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2.3% 순으로 나타났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소송비로 368억

김동아 의원 "공기업 간 분쟁에 수백억 혈세 낭비"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용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300억원대 소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과 관련해 총 368억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범주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2년 간의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

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으로, 총 4기, 수주 금액 약 22조6000억원 규모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한전 간 종합준공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두기업 간 이례적인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으며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료 약 10억달러(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전에 게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LCIA에 10억달러 추가 공

사비 정산 중재 신청을 내기도 했다.

반면 한전은 UAE와 '팀 코리아' 차원의 추가 공사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두 기업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자, 한전이 한수원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점이다. 본격적인 분쟁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가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하면서 외국에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해결 노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신협, 2026년도 신입직원 공채

13~22일 접수...2개 분야

신협중앙회가 2026년도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군(기획·총무, 자금운용, 여신지도·관리, 경영지도, 감사·감독)과 IT직군(IT개발·관리)으로 나뉜다. 특히 일반직군은 조합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신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해 전원 지역연고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할당 방식으로 선발한다. 지역연고는 지원자의 졸업(예정)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전형은 희망 지역별 분리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역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서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신협 채용사이트(cu.saramin.c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이후 신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22일과 23일 양일간 실시되며, 공통 과목은 △인적성검사 △직무능력시험 △직무상식시험이다. 이와 함께 일반직군은 논술시험, IT직군은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추가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회
220603-중-139779